

A close-up photograph of a cluster of pink orchids. The flowers have a vibrant pink color with a dark, almost black, center. They are arranged in a loose, branching pattern.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green, suggesting foliage. The lighting is bright,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petals.

위인칭송의 꽃 김일성화

위인칭송의 꽃 김일성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외국문출판사
주체 104(2015)년

인간생활과 함께 얹힌 꽃의 역사는 아름다움과 존경, 희망과 행복, 축원에 대한 감동깊은 사연들을 새기고있다. 그 가운데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명명되어 50년의 역사를 세상에 수놓아 온 김일성화도 있다.

꽃은 자연의 토양속에서 배양육성되지만 김일성화는 인류의 마음속에서 움트고 싹틔워져 아름답게 피어난 열화같은 매혹과 숭배의 결정체이다.

김일성화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남다른 경위와 흘러온 역사가 이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김일성화가 태어난 고장은 인도네시아의 도시 보고르이며 이 꽃을 육종한 사람도 인도네시아의 명망높은 식물학자이다.

하지만 오늘 김일성화는 조선과 인도네시아뿐아니라 인류공동의 꽃, 존경과 흠모, 희망의 상징으로 세계 각지에 만발하고있다.

주체54(1965)년 4월, 열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인 반둥회의 10돐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온 신흥세력나라들의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저명한 정치인들로 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식물원에는 새로 육종한 류달리 아름다운 란과계통의 꽃이 첫 망울을 터치며 자기의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었다.

세계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인을 기다려 활짝 피어난 이 진귀한 란꽃을 인도네시아공화국 전 대통령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삼가 올리면서 다함없는 매혹과 흠모의 정을 담아 김일성화로 부를것을 발기하고 명명하였다.

김일성화의 명명은 비단 수카르노대통령뿐아니라 란꽃을 가장 사랑하며 커다란 상징적의미를 부여하는 인도네시아 인민들과 나아가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흠모하며 따르는 세계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의 반영이었다.

기성전례를 깨뜨리고 큰 파문을 일으키며 위인칭송의 꽃으로 솟아오른 김일성화의 출현은 세계화초계에 특기할 감동깊은 사변으로 기록되었다.

꽃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는 그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매우 강렬하며 그 령역에도 한계가 없다. 김일성화는 세상에 출현한 때로부터 정견과 신앙, 지역적공간을 벗어나 만민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속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있다.

세월의 풍파속에서도 10년세월 애지중지 키우며 소중히 간직해온 인도네시아인민들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 옮겨와 뿌리내린 김일성화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관심속에 각이한 품토에 적응할수 있을뿐아니라 사시절 활짝 피울수 있게 그 재배와 번식방법이 완성되어 수천만송이로 만발하게 되었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전체 조선인민과 해외동포들은 더욱 큰 애착을 가지고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바라며 김일성화 축전과 전시회를 비롯한 성대한 꽃축행사들을 년례화하고있으며 여기에 국제사회계의 뜨거운 관심과 지성이 모아지고있다.

특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인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해마다 성황리에 열리곤 하는 김일성화축전은 수만상의 김일성화꽃바다에 겹친 사람바다로 하여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대꽃축전이다.

국제란과계통의 학회에 등록되어있는 명화 김일성화는 여러차례에 걸쳐 세계원예박람회들에서 최고상, 최우수상들을 받았으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곳에서 널리 재배번식되어 온 세상에 만발하고있다.

위인의 존함을 지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김일성화.

세월의 흐름속에 계속 진화되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단순한 자연계의 꽃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과 위인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으로 하여 조선의 국보, 인류공동의 재보로 누리에 빛을 뿌리며 만발하는 만민칭송의 꽃 김일성화는 세기와 더불어 끝없는 사랑과 영생의 역사를 새기며 불멸할것이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수카르노와 함께 새로 육종한
김일성화를 보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4(1965)년 4월 13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수십km 떨어진 해발 200m의 구릉지대에 펼쳐져있는 보고르식물원은 1817년에 창설되어 역사도 비교적 오래고 세계적으로 소문난 식물원으로서 그 면적이 방대하며 열대식물만 해도 1만종이상 키우는 말그대로 인도네시아의 꽃밭이다.

주체54(1965)년 4월 김일성화가 래여난 곳인것으로 하여 보고르식물원은 세상에 더욱 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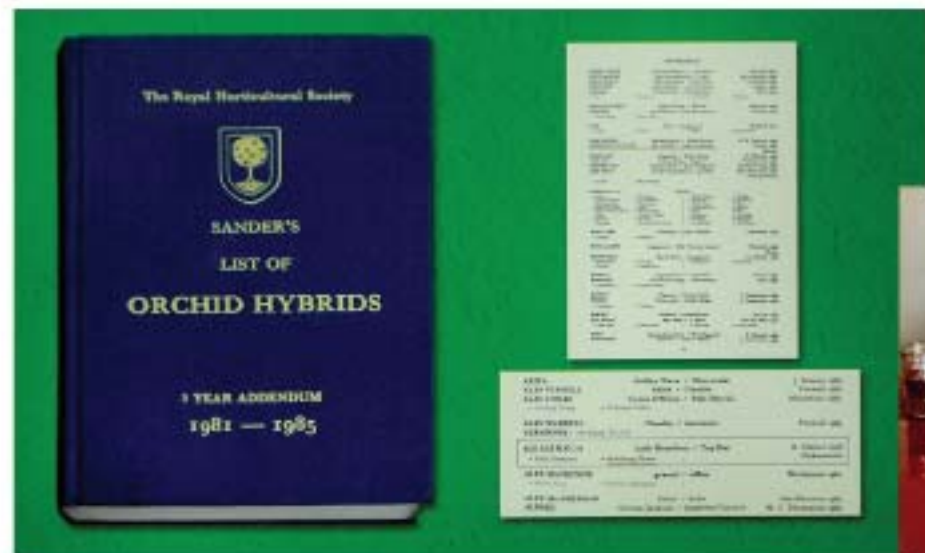
현재 보고르식물원의 관재배온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방문을 기념하여 세워진 사적표식비가 있다.



김일성 화육종가 씨. 엘 분트



영국왕실원예학회에 새 품종으로 등록된 김일성화원종 국제란과식물잡종등록위원회에서 심의등록한 김일성화의 등록신청문건원본



김일성화가 국제란잡종등록위원회에서 정식 학명으로 등록된 정형을 수록한 《싼더의 란잡종목록명세표》(1981-1985)

김일성 화학명등록문건을 쓰고있는
균터 수카르노 푸레라



김일성화가 조선으로 오기까지

주제54(1965)년 4월 13일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표시로 새로 육종한 아름다운 란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할것을 받기하고 재배기술을 더 완성하여 1~2년후 조선에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후 인도네시아에 조성된 뜻밖의 정세로 하여 김일성화는 조선으로 인차 오지 못하게 되었다.

보고르식물원 원장이었던 수잔나 까썬은 식물원을 떠나 외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었지만 마음속에 언제나 김일성화를 간직하고 병상에 있으면서도 김일성화를 조선에 보내주지 못한 자책으로 몹시 괴로워하였으며 립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 씨. 엘 분트를 찾아 김일성화를 꼭 김일성동지께 전해드리라는 유언을 남기였다.

원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씨. 엘 분트를 만나 김일성화의 재배방법을 완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였으며 자기들을 찾아온 조선일군들을 만나 마침내 소원을 이룰수 있었다.

란꽃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인민들은 《란꽃속에서 래여나 란꽃속에서 웃으며 죽는다.》라는 말까지 전해져내려오는 정도로 꽃중에서 란꽃을 제일 좋아하며 인도네시아는 란꽃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종의 란꽃이 재배되고있다.

식물학적으로도 진화의 정점에 있으며 아름다움에서도 첫자리에 놓이는 란꽃을 인도네시아인민들은 높은 절개의 상징으로, 티없이 맑고 깨끗한 랑심의 거울로 여기며 사랑하고있다.



김일성화는 다년생의 사철 푸른 초본식물로서 란과 계통에 속하는 꽃이다.

1년에 두번 피는데 한번 피면 2~3개월동안 지지 않고 계속 피어있는 특이한 꽃이다.

나비모양의 2개의 꽃잎과 가운데 도드라져나온 입술 모양의 꽃잎인 입술판, 꽃잎을 받쳐주는 3개의 꽃받침잎이 정교한 공간구조를 이루고있다.

꽃잎과 꽃받침모두가 진분홍보라색으로 물들여져 있고 꽃받침잎끝은 특별히 흰색을 띤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은 주체91(2002)년 4월에 개관되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중앙홀 정면 중심에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상이 밝게 모셔져있고 그앞에 사시장철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전시되어있으며 여러가지 관상식물들과 꽃들이 이채롭게 장식되어있다.

중앙홀에는 또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명명하고 육종보급하는데서와 전시관건설에 공헌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전 대통령 수카르노, 일본의 원예가 가모 모도테루와 세계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위원회** 회원들이 남긴 글과 그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돌들이 전시되어있다.

중앙홀 한옆으로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의 육종경위와 그 보급, 축전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선전실이 있다.

홀중심의 춤추는 분수를 지나 계단승강기를 타고 오르면 드넓은 면적의 2층과 3층으로 된 전시홀이 있는데 여기서는 해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탄생일과 주요 기념일을 맞으며 **김일성화**축전과 **김정일화**축전이 성대히 진행된다.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온 기념돌들



불멸의 꽃 선전실



김일성화김정일화 조직배양실

김일성화김정일화 재배온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깊은 관심속에 김일성동지의 탄생 87돛이 되는 주체88(1999)년 4월 15일 래양절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가 열리었다.

해마다 김일성화전시회의 규모가 커지고 전시회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 친선단체들이 계속 참가함에 따라 제5차부터는 그 명칭을 김일성화축전으로 바꾸게 되었다.

축전이 진행되는 기간 김일성화에 대한 과학기술발표회와 예술 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있으며 조선인민들은 물론 수많은 해외동포들, 외국손님들이 축전장을 참관하고있다.





태양의 위업은 영원하리라

태양절

원연보단부

대성은성











인도네시아공화국 초대대통령 수카르노의 부인
라르나 사리 데비 수카르노



인도네시아공화국 전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쁘트리



캄보자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또다시 김일성화,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김일성화, 김정일화는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서
큰 역할을 할것입니다.

라르나 사리 데비 수카르노
2007년 4월 13일

축전장을 돌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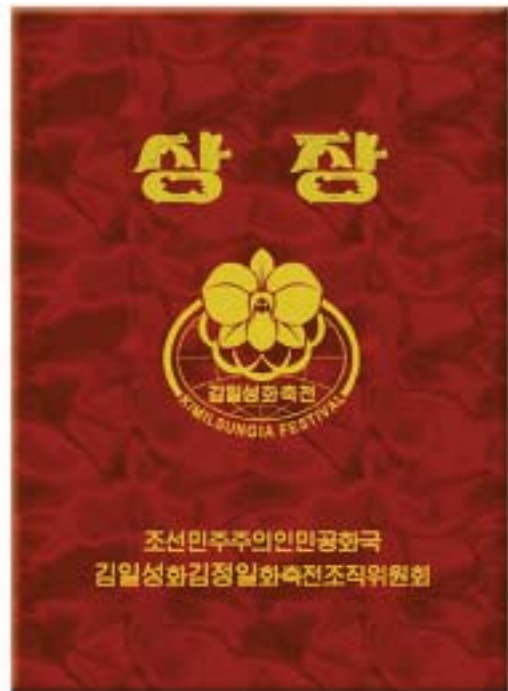
나와 나의 일행은 오늘 성대한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일성화축전은 김일성대원수각하와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축전입니다.

또한 김일성대원수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일심
단결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캄보자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2006년 4월 19일 평양





김일성 화축전상장



김일성 화축전상장 수여식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회원증을
수여하는 보급후원회 명예회장
라르나 사리 데비 수카르노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사업총화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회원들과 그 일행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식물원에서
진행된 김일성화전시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중국 길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중국 대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제4차 중국 단둥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기네 궤나크리시에서 진행된 서아프리카지역 김일성화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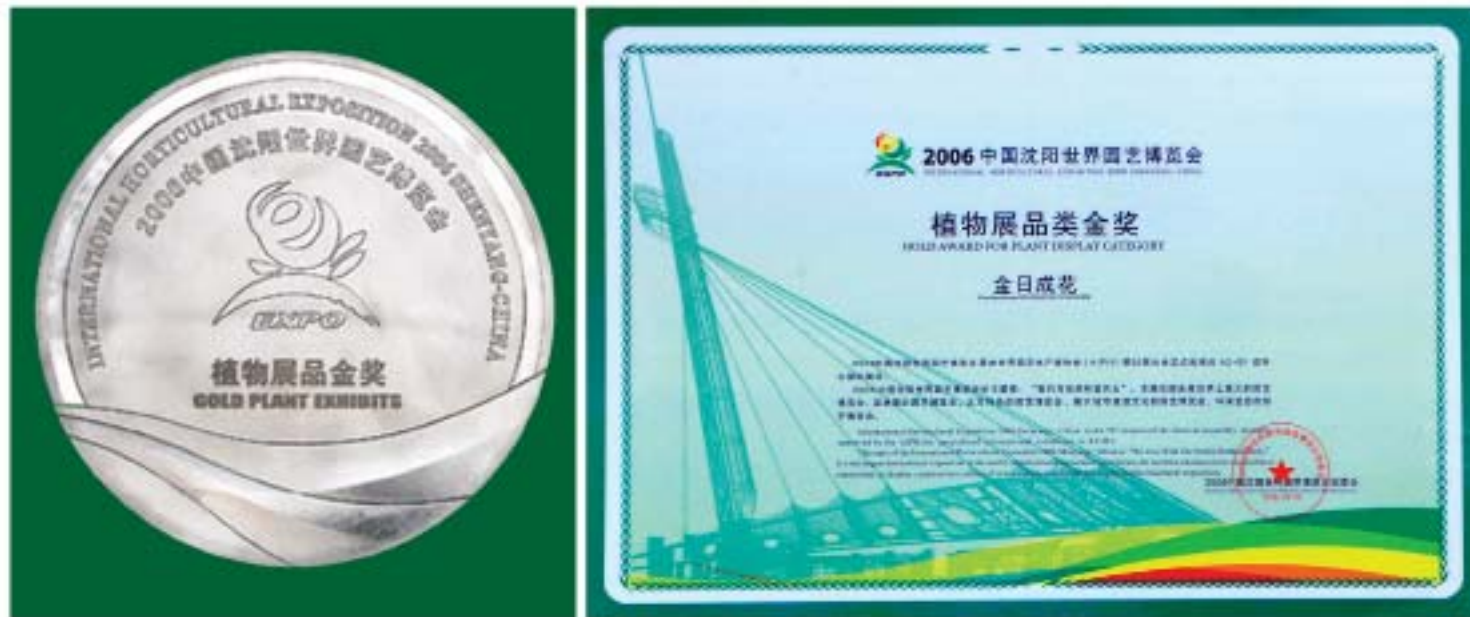




국제 원예 박람회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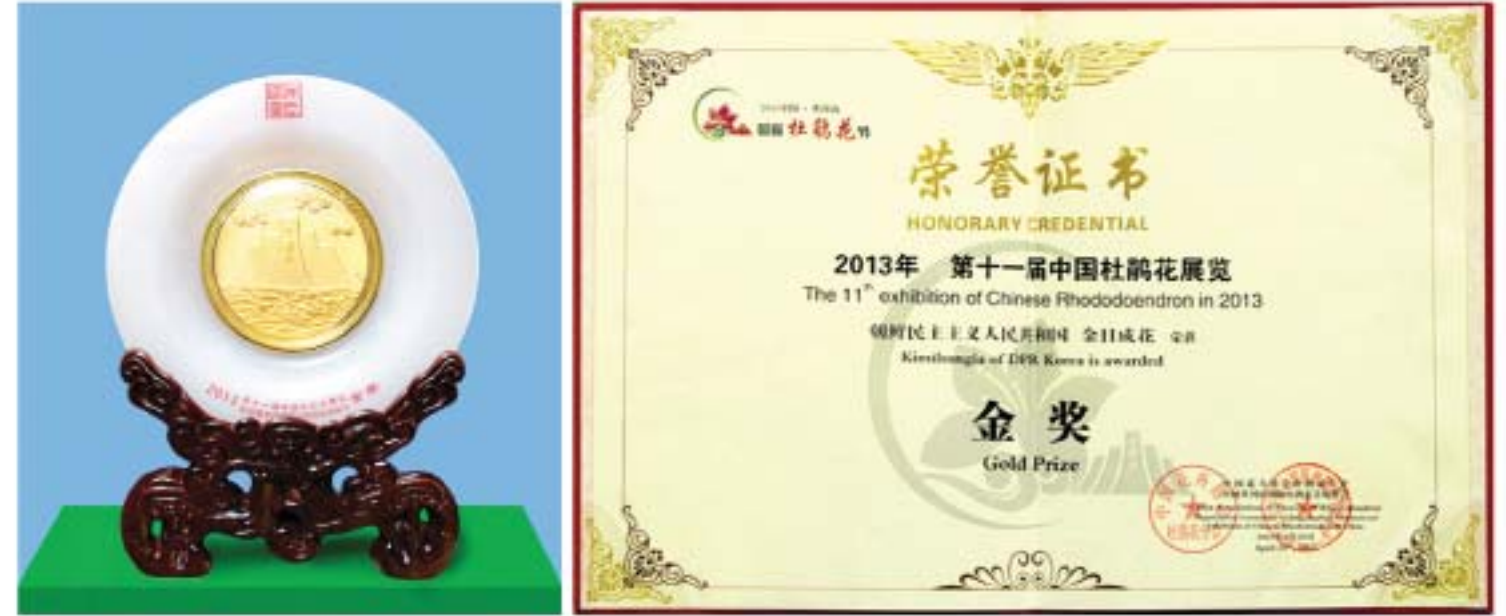
2006중국심양세계 원예박람회에서 김일성 화에 수여된 박람회 최고상인 금상과 상장



2009년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7차 중국화초박람회에서 김일성 화, 김정일 화에 수여된 최우수진시품상과 상장



2011중국서안세계 원예 박람회에서 김일성 화에 수여된 국제란꽃경쟁 최고상인 금상과 상장



2013년 제11차 중국두견화전시회에서 김일성 화에 수여된 전시회 최고상인 금상과 상장



제8차 중국화초박람회에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수여된 최고전시상과 전시대



제9차 중국(베이징)국제원림박람회에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수여된 특별전시상과 전시대



제8차 중국(상하) 국제 란꽃박람회에서 김일성 화에 수여된 특별상장과 전시대



2014청도세계 원예 박람회에서 김일성 화에 수여된 금상과 상장

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

정서적으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작사 전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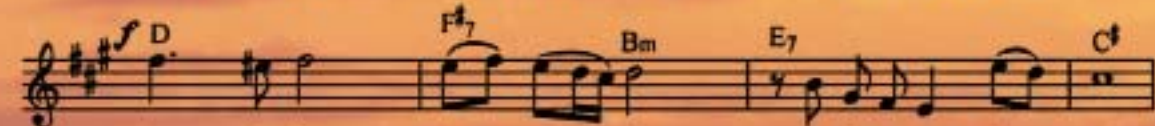
작곡 리정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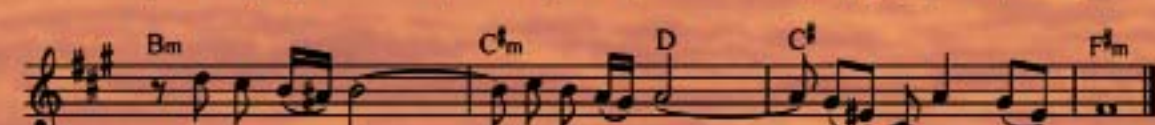
1. 대양 건너 - 산을 넘어 - 멀고 - 먼 - 나 - 라



아름답게 - 피어나는 - 충성의 김 일 성 화



수령님 우 - 러 - 러 불타는 그 마 - 음



송이 마 - 다 - 붉게 붉 - 게 - 어 - 러 있 어 - 라

2. 위대하신 수령님의 존함 모시고
송이마다 반겨 웃는 충성의 김일성화
만민의 뜨거운 축원을 안고
아름다운 조국땅에 만발하여라

3.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발아래서
붉게붉게 피어나는 충성의 김일성화
주체의 태양을 따르는 그 마음
꽃향기로 온 세상에 풍기어나라



편집: 김은정

글: 오해연

사진: 공유일, 안철룡, 한성일

교정: 오순이

위인칭 송의 꽃 김일성화

낸곳: 외국문출판사

인쇄: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발행: 주체104(2015)년 3월

7-583201